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0년 ~ 2014년)



원주시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1. 목표 및 방향

목 표

-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강화 -
 - 국가재정계획과의 연계 강화
 -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정착
 -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 제고
 -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방 향

- 지방재정의 변화에 따른 효율적 대응 -
 -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용
 - 경상예산의 최소화, 투자사업예산은 최대한 확대
 -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신규사업의 중점 검토
 -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 구축
 - 투자심사 병행으로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계획기능 및 심의기능 제고
 - 재정운용의 기본으로 활용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장기발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 예산편성 연계운영

2. 계획개요

가. 계획수립

- 의 의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 대상분야 : 일반 및 특별회계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 계획기간 : 2010 ~ 2014(5년)
- 수립내용
 - 계획지표의 수정 보완 : 지역경제·재정지표 등
 - 재정 전망 : 세입·세출추계, 투자가용자원 판단
 - 투자 계획 수립 : 투자사업 선정 및 자원배분 계획
 - 부족재원 대책 강구 : 지방채 등 동원가능 자원 반영

나. 수립개요

- 계획수립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의회에 보고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계획수립기간은 5년으로 하여 재정적 여건변화내용을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2010	2011	2012	2013	2014
최종예산안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발전계획

- 계획수립지침 :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
- 전국계획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적인 재정계획 수립

제2장 자치단체 현황

1. 일반현황

□ 지역적 특성

-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수도권 배후 산업·교통도시
- 첨단 의료·건강도시, 안전도시, 과학문화도시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중소기업의 요람 및 물류·유통 거점도시
- 수려한 청정환경, 문화·체육·레저 기반을 갖춘 생태 휴양도시

□ 인 구 : 315,927명(2010. 10월말 현재)

□ 면 적 : 867.30km²(강원도의 5.2%)

□ 행정구역 : 1읍 8면 16동, 180리 365통 3,407반

□ 행정조직 : 5국 27과 2직속기관 9사업소 191담당, 정원 1,350명

□ 2010년 지역지표

- 도로 포장율 : 62.7%
- 자동차보유 : 124천대
- 상수도보급율 : 87.9%
- 주택보급율 : 91.4%
- 하수도보급율 : 84.1%
- 경지정리율 : 100%
- 하천 개수율 : 86.2% (지방하천 85.1%, 국가하천 89.9%)

□ 2010년 재정현황 (제2회 추경 기준)

- 예산 규모 : 6,778 억원 (일반회계 5,503, 특별회계 1,275)
- 재정자립도 : 31.8 % (일반회계 기준)
- 주민1인당 지방세 부담액 : 377 천원
- 주민1인당 채무 부담액 : 383 천원(원금기준)

※ 연도별 재정규모 현황 : <표1> 참조

<표1> 원주시 연도별 재정규모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총 계 (A)		일반회계(B)		특별회계(C)		비 중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예산액	증가율	B/A (%)	C/A (%)
1988	36,083	0.5	28,365	0.04	7,718	2.4	78.6	21.4
1989	63,952	77.2	42,924	51.3	21,028	12.5	67.1	32.9
1990	141,252	120.9	51,492	20.0	89,760	326.9	36.5	63.5
1991	202,911	43.7	68,321	32.7	134,590	49.9	33.7	66.3
1992	302,511	49.1	93,206	36.4	209,305	55.5	30.8	69.2
1993	265,805	-12.1	88,978	-4.5	176,827	-15.56	33.5	66.5
1994	197,383	-25.7	122,004	37.1	75,379	-57.4	61.8	38.2
1995	222,123	12.5	144,434	18.4	77,689	3.0	65.0	35.0
1996	245,065	10.3	167,420	15.9	77,646	0.1	68.3	31.7
1997	281,087	14.7	205,516	22.8	75,571	-2.7	73.1	26.9
1998	295,285	0.56	213,728	4.4	81,557	8.9	72.4	27.6
1999	286,582	0.4	198,986	4.5	87,596	10.4	69.4	30.6
2000	314,256	9.6	214,023	7.5	100,233	14.4	68.1	31.9
2001	393,985	25.4	263,653	23.2	130,332	30.0	66.9	33.1
2002	464,422	17.9	304,244	15.4	160,178	22.9	65.5	34.5
2003	453,378	-2.4	296,316	-2.6	157,062	-1.9	65.3	34.6
2004	494,751	9.1	340,568	14.9	154,183	-3.7	68.8	31.2
2005	631,245	27.6	417,844	22.7	213,401	38.4	66.2	33.8
2006	613,564	-2.8	418,964	2.7	194,600	-9.1	68.3	31.7
2007	640,709	4.4	457,093	9.1	183,616	-5.6	71.3	28.7
2008	746,590	16.5	537,654	17.6	208,936	13.8	72.0	28.0
2009	803,509	7.6	569,864	6.0	233,645	13.8	70.9	29.1
평균		18.41		16.16		23.04	62.43	37.56

제3장 중기재정운용 여건

1. 국가재정여건의 전망

□ 수출과 내수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건실한 성장률 기록 전망

○ OECD는 한국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영향으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강한 회복세를 나타낸 국가로 평가하면서

- 한국경제 성장률을 '10년 5.8%, '11년 4.7%로 전망

* KDI 국내경제 전망('10.4월 전망) : ('09)0.2% → ('10)5.9% → ('11)4.4%

○ 다만, 위기 국면 이후의 국제공조의 불확실성, PIIGS국가들의 재정위기,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등 하방위험 존재

□ 금년 중 재정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와 투자에 힘입어 '10년 5.8%, '11년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전세계 교역량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 내수회복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09년 GDP 대비 5.1%에서 '10~'11년 2% 이하로 축소 전망

○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기업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주택건설 투자는 미분양주택 증가,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으로 둔화될 전망

○ 실업률은 '11년 말까지 3.2%로 감소, 소비자 물가는 '10년 3.0%, '11년 3.2%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방향

□ 경기 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용

- 단기적으로 경기회복에 적극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성장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재정 운용
-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원은 중점투자 분야에 전략적으로 배분
 - * (중점투자 분야)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미래대비 투자
 - * (구조조정 분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지원이 확대된 분야, 투자효율 및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 등

□ 재정건전성 회복 추진

- 대내·외 재정운용 여건, 경기 동향, 국정과제 소요 등을 감안, 재정건전성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히 관리

< 중앙정부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목표 ('09~'13년 계획)>

- ◆ (재정수지) '10년 GDP 대비 $\Delta 2.9\%$ 수준(정부기준안)
점차 축소하여 '13~'14년 균형수지 달성('13년 $\Delta 0.5\%$)
- ◆ (국가채무)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12년에 하락세 전환, '13년에 30%대 중반 수준 관리

-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대와 위기극복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소요 전면 재검토 등 세출 구조조정 병행

3. 국가 중기 자원배분 방향

-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되 저소득층 지원 위주로 내실화**
 -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일을 통한 복지 실현**, 근로능력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보장 등 **공적부조 강화**
 - 일자리 유지·창출 지원, 교육·훈련 강화, 주거·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중산층 기반을 확대**

- **미래대비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에 역점**
 - 성장과 환경이 상생하는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
 - 삶의 질 향상 및 녹색성장을 위한 소재·환경·에너지분야 등에 대한 R&D지원 확대
 - 신재생에너지, 첨단융합산업 등 **성장동력 확충 산업**과 의료·문화·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집중 육성
 - 글로벌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양성에 중점**

- **재정의 지속성 확보 노력 강화**
 - 저출산·고령화, 남북통일 등 **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비**
 -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예상되는 대규모 지출소요와 관련, 지출 계획을 점검하고 재정투자계획에 반영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간 우선순위 재검토, 재정 성과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 추진

4. 중기 세입 전망

□ 자주재원은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

- 지방세는 미분양 주택현황이 '09.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국적으로는 경제위기 이전인 '07년 수준으로 회복
-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인구증가 등에 따라 증가세 유지
- 지방소득세는 기업 및 공장유입에 따른 소폭 증가 예상
-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아 평년과 비슷한 일정 수준 유지

□ 의존재원은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국세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및 소득·법인세율 인하 조치 유예 등에 따른 국세 증가로 교부세 규모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가기금, 도비보조금은 경기 회복과 국가채무 부담증가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각종 한시 사업 중단, 지역단위 국고보조사업정비 및 자치단체 배분을 조정 등 예상
- 재정정보전금은 부동산거래 둔화 등으로 도세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소 전망
- 지방채는 '10년도 지방채 발행의 확대로 신규 지방채 발행 여력이 크게 신장되지 못할 전망

제4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자원배분 방향

1. 중기재정운용 목표

- 의존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확보 노력 최대 강구
- 경상예산 증가폭을 최소화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
- 재정수지 : 2014년 균형수지 달성
- 채무수준 : 201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20%미만(원금기준) 억제
- 세입 및 지출규모 : 연평균 4.3% 증가

2. 자원배분 방향

□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

- 경상예산의 긴축 운영 및 사업예산의 확충 최대 노력
- 계속사업 마무리와 신규사업은 중장기적 계획에 의해 추진
-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야별 재원의 균형 배분

□ 건전한 예산집행과 책임 강화

- 중기지방재정계획·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제도 준수
- 지원적·수혜적 민간경비의 집행질서 확립
- 지방채무의 건전한 계획적 관리
- 예산편성 시 다양한 시민의 의견수렴 반영

□ 새로운 희망의 푸른도시(New Green wonju) 조성

- 지역 현안사업의 착실한 추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핵심전략산업 육성과 살아있는 경제 활력 기반 확충
- 시민의 문화적 가치육구 충족 및 체육복지 실현
- 서민생활 안정 및 시민보건 수요 충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지속 확충